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에 대한 잠재성장모형과 모의 특징 및 유아 문제행동의 구조관계*

전혜진¹⁾ 유미숙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조사의 종단자료를 적용하여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1차 연도에 측정된 모의 사회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과 어머니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그리고 5차 연도에 측정된 유아의 문제행동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패널자료 2008~2012 자료를 바탕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 환경으로서 1차 연도 모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에 영향을 미치고 모의 자아존중감은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기질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차 연도의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과 어머니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가 5차 연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정서성 기질, 아동 문제행동, 발달 궤적, 구조모형,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I. 서론

영유아는 고유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McClowry, 2003). 기질은 세상에 대한 반응 방식에서의 개인차를 의미하는 것(Rothbart & Bates, 2006)으로 선천적인 특성이 강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은 기질의 특

* 본 논문은 제8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2017.10.20.) 발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 박사수료

2)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성이 발현되는데 영향을 미치며(Goldsmith, Lemery, Buss, & Campos, 1999), 기질의 구성 요소별로 안정성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형민·박혜원·김말경·장유경·최유리, 2008). 즉, 기질의 발현은 타고난 생득적인 특성으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Bates, Schermerhorn, & Petersen, 2012). 특히, 출생 이후부터 만 2~3세 무렵의 영유아기에는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로 양육 환경으로서 모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 중요하다. 실제로 영아의 신호에 둔감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양육자는 유아의 기질이 정서적으로 더욱 예민해지도록 강화하는데, 이러한 경우 아이는 부모의 훈육에 대항하기 위해 저항적인 태도를 더욱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Susan, Hemphill, & Smart, 2004). 반면에 아이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강하게 표현할 때 보호자(母)가 이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평상심을 유지하여 적절한 속도로 아이의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제지하면 생물학적인 기질에 비해 좀 더 적응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아동의 모습으로 발달한다(Bates, maslin, & Frankel, 1985; Chess & Thomas, 1984). 또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머니는 아동의 흥미나 놀라움에 대해 즉각적으로 관심을 갖는 반면 아동의 불쾌 정서에는 덜 반응하거나 반응을 자연스럽게 된다(Malatesta et al., 1989). 이러한 경우에 부모와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아동은 불쾌 정서를 덜 나타내도록 훈련받게 된다(Shaffer, 2008).

기질에 대해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가들 중에 Buss와 Plomin(1984)은 EAS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모형을 제시하며 기질은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정서성 기질은 기분이 쉽게 나빠지거나 화가 났을 때 반응을 격하게 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기 기질의 중요한 요소(Rothbart & Bates, 2006)로 작용한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정서성 기질은 생애 첫 관계를 맺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Rothbart, 1982)을 미치고 다양한 발달 장면에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김소영·홍세희, 2015). 구체적으로는 놀이 상호작용(권연희, 2012), 사회적 행동(Rothbart, Ahadi, & Hershey, 1994), 아동기의 사회적 기술(Eisenberg, Fabes, & Murphy, 1996)과 부적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공격성, 사교성, 친사회적 행동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Russell, Hart, Robinson과 Olsen(2003)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Fox와 Calkins (1993)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반응성과 불안이 높은 영아는 14개월 즈음에 또래관계로부터 고립되거나 위축될 수 있지만, 양육자의 지지적인 양육을 통하여 행동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정서성 기질은 유아의 성격발달 및 부적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 과정에 있어서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수용되고 있다(Rothbart & Bates,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적용하여 출생 이후 해마다 유아의 정서성 기질을 측정한 자료를 통해 정서성 기질의 변화 궤적을 추정하고 유아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으로서 모의 특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양육 환경으로서 어머니는 영유아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모(母)의 양육은 영유아의 정서 및 행동 발달(서석원·이대균, 2014; Ostberg & Hagekull, 2013; Rodriguez, 2011)에 영향을 미치고, 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가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이정숙·두정일, 2008; Ross & Mirowsky, 1988) 모(母)의 심리적 상태(Lamb, 2010)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협력적인 공동 양육자로 인식되고 이 과정에서 부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Mulsow, Caldera,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또한 부의 양육 참여는 영유아의 인지발달(Sarkadi, Kristiansson, Oberklaid, & Bremberg, 2007), 사회성 발달(Leidy, Schofield, & Parke, 2012), 자아존중감(Rohner & Veneziano, 2001) 및 정서조절 능력(최미숙·송순옥, 2014)에도 영향을 미치며 영유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louri & Buchanan 2003). 또한, 모(母)의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아이를 다루는 양식이 달라지며(Miller, Kreitman, Ingham, & Sashidharan, 1989), 모의 심리적 강건성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대체로 아동을 다루는 것이 덜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소영·홍세희, 2015). 즉, 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양육 상황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Sanders & Woolley, 2005).

한편,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임상적으로 심각한 정신병리적 특징과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한 가지의 문제 영역이 또 다른 영역의 문제로 확장되기도 한다(Visser et al., 2010). 또한, 유아기에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이며(Oland & Shaw, 2005),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보이는 문제행동의 기저에는 공유하고 있는 원인이 있다는 설명(Masten & Curtis, 2000)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외현화 및 기타문제를 유아기의 문제행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에 대하여 아동의 발달 과정과 문제행동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유아의 적응적인 발달을 지지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발달 연구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접근으로 유아의 행동발달을 가장 잘 예측하는 정서성 기질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연구는 한 시점에서 변수들 간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으며 보호자 요인으로서 모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의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차 연도(2008~2012)에 걸쳐 추적된 한국아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양육 환경으로서 모의 특징과 유아 문제행동과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여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연구문제 1. 영유아(0~4세)의 정서성 기질의 변화는 해마다 어떠하며, 이 변화 양상에 대하여 유의미한 개인차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2.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과 모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유형 및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의 양육참여 그리고 유아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2008년(1차) ~ 2012년(5차) 연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은 2008년 1차 연도 조사에서 전국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영아 중 4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만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 신생아 가구 표본을 추출한 자료로 대표성이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150명(남 1,091명 50.74%, 여 1,059명 49.26%)의 표본 자료가 활용되었다.

2. 측정도구

가.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Buss와 Plomin(1984)의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기질 척도 중 '정서성 기질'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2, 재인용). EAS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어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로 표기하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성 기질의 값이 클수록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1차년도 cronbach's $\alpha = 0.58$, 2차년도 cronbach's $\alpha = 0.54$, 3차년도 cronbach's $\alpha = 0.55$, 4차년도 cronbach's $\alpha = 0.50$, 5차년도 cronbach's $\alpha = 0.57$ 이며, 문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을 측정하는 문항

번호	내용
1	우리 아이는 잘 운다.
2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3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4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5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나. 모(母)의 자아존중감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1989)를 사용하였다. 이는 해외의 주요 종단 패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의미가 되도록 (*) 표시한 부정형 문장은 역으로 코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5$ 로,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모(母)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

번호	내용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번호	내용
4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5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6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7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8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9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다. 모(母)의 사회적 양육유형

Bornstein(1989)의 양육유형(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척도 중 사회적 양육유형을 측정하는 9문항을 사용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2, 재인용). PSQ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어 해당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로 표기하며, 사회적 양육유형, 가르치는 양육유형, 한계설정 양육유형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양육유형의 값이 클수록 친사회적 양육 스타일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 0.77$ 이며, 각 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사회적 양육스타일을 측정하는 문항

번호	내용
1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2	나는 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3	나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
4	나는 내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5	나는 내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6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라. 부(父)의 양육참여

강희경과 조복희(1999)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정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모(母)가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에 대하여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표기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로 표기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 0.78$ 이며, 각 문항은 <표 4>와 같다.

〈표 4〉 부(父)의 양육참여를 측정하는 문항

번호	내용
1	우리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2	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3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4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마. 유아의 문제행동

Achenbach와 Rescoral(2000)가 개발하고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표준화한 한국판 영유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 CBCL 1.5-5)를 사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만 4세인 5차 연도에 측정된 내재화, 외현화, 기타문제 데이터 중 T점수를 활용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내재화 cronbach's $\alpha=0.87$, 외현화 cronbach's $\alpha=0.88$, 기타문제 cronbach's $\alpha=0.80$ 이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요인으로 모의 사회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양육 환경으로서 모(母)의 특징 및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 모형을 분석하고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집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SPSS 21.0 그리고 AMOS 21.0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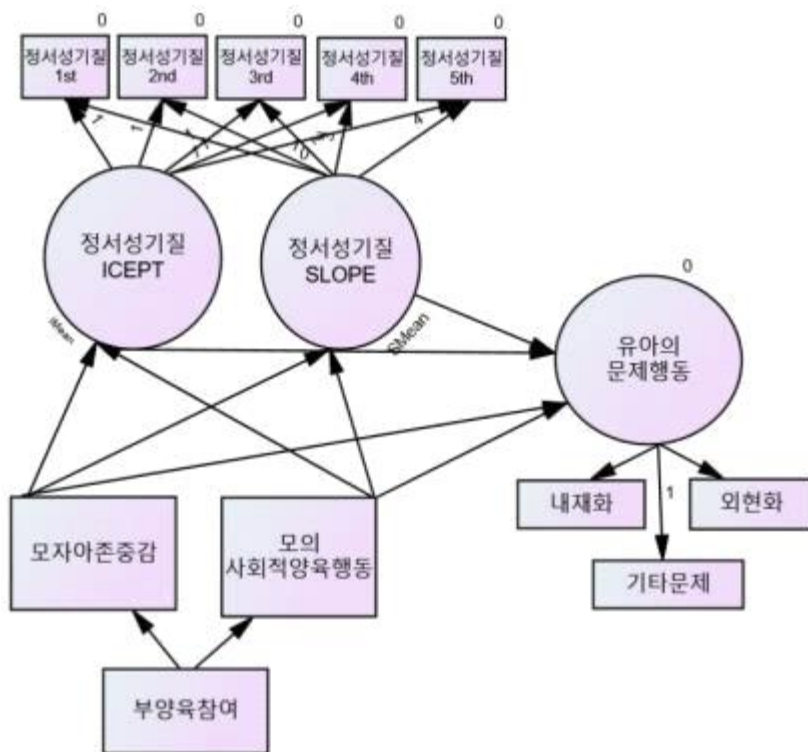
첫째,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관찰변인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양상과 모의 사회적 양육유형,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정서성 기질의 성장모형을 탐색하고, 종단매개관계를 확인하고자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이 기초가 되어 반복 측정된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으며 어떤 변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나타낸

다. 또한 그 변화의 개인차가 유의한지를 검증할 수 있으며(Meredith & Tisak, 1990)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함수가 변화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심 변인과 결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Raykov, 2000). 이러한 모형은 다수의 변인간의 관련성을 단순하게 검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변인 사이의 변화에 대한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홍세희·유숙경, 2004).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χ^2 값과 함께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RMSEA와 상대적합지수(reletive fit index) TLI, CFI를 고려하여 적합성과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적합도 기준은 TLI와 CFI는 .90이상, RMSEA는 .50이하 좋음(close fit), 80이하 양호(reasonable fit), .10이하 보통(mediocre fit)을 기준(홍세희, 2000; Brwon & Cudeck, 1993)으로 적용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 오차항 표기 생략됨.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측정 시기별로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은 <표 5>와 같다.

<표 5> 각 변인별 기술통계

측정 변인	연차	<i>N</i>	<i>M</i>	<i>SD</i>	<i>Min.</i>	<i>Max.</i>
영유아 정서성 기질	2008 (1차)	2,044	13.58	3.06		
	2009 (2차)	1,892	13.55	3.12		
	2010 (3차)	1,766	14.22	3.07	5.0	25.0
	2011 (4차)	1,698	14.37	3.08		
	2012 (5차)	1,670	13.99	3.20		
모의 자아존중감	2008 (1차)	1,847	25.22	2.06	10.0	40.0
모의 사회적 양육유형	2008 (1차)	1,860	24.30	3.02	6.0	30.0
부의 양육참여	2008 (1차)	1,859	14.33	3.23	4.0	20.0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기타문제	2012 (5차)	1,694	49.85	9.86	31	86
			49.41	9.59	31	86
			53.58	5.42	50	79

영유아 정서성 기질의 평균은 1차 13.58, 2차 13.55, 3차 14.22, 4차 14.37, 5차 13.99로 나타났다. 1차 연도 모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25.34, 사회적 양육유형 평균은 24.30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평균은 14.33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기타문제 각각의 T점수 평균은 49.85, 49.41, 53.58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1차에서부터 5차 시점까지 및 모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유형 및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의 양육참여 그리고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각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서성 기질의 1차, 2차, 3차 시점과 모의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기질의 1차, 2차, 3차, 4차, 5차 시점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에 모의 사회적 양육유형과 모가 지각하는 부의 양육참여는 정서적 기질의 1차에서 5차 시점 모두에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46**	1									
3	.30**	.49**	1								
4	.24**	.41**	.53**	1							
5	.23**	.36**	.50**	.57**	1						
6	.10**	.08**	.05*	.03	.03	1					
7	-.12**	-.15**	-.10**	-.07**	-.11*	-.07**	1				
8	-.04	-.09**	-.08**	-.06*	-.05**	.02	.23**	1			
9	.13**	.23**	.29**	.35**	.41**	-.01	-.10**	-.03	1		
10	.11**	.20**	.29**	.34**	.43**	-.19	-.14**	-.06*	.73**	1	
11	.12**	.20**	.23**	.25**	.30**	.01	-.06*	-.01	.67**	.63**	1

주: 1. 정서성 기질 1차, 2. 정서성 기질 2차, 3. 정서성기질 3차, 4. 정서성 기질 4차, 5. 정서성 기질 5차, 6. 모의 자아존중감, 7. 모의 사회적 양육유형, 8. 아버지의 양육참여, 9. 내재화 10. 외현화 11. 기타문제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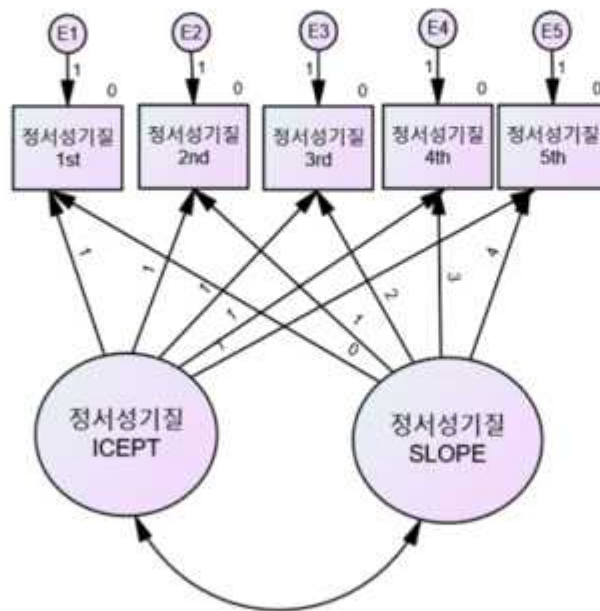
3. 정서성 기질의 잠재성장모형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측정된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을 추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는 〈표 7〉과 같다.

〈표 7〉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무변형 모형	554.22	17	.000	.793	.766	.121(.113-.130)
무조건모형 1 (변화율 경로계수 0 1 2 3 4)	210.78	14	.000	.959	.976	.049(.041-.057)
무조건모형 2 (변화율 경로계수 0 1 1 2 3)	347.14	14	.000	.844	.855	.105(.096-.115)
무조건모형 3 (변화율 경로계수 0 1 1 1 2)	418.40	14	.000	.811	.824	.116(.107-.126)

모형	x^2	df	p	TLI	CFI	RMSEA
무조건모형 4 (변화율 경로계수 0 1 1 1 1)	383.97	14	.000	.827	.839	.111(.101-.121)
이차함수모형 5 (변화율 경로계수 0 1 4 9 16)	185.64	12	.000	.905	.924	.082(.072-.093)



[그림 2] 정서성 기질의 잠재성장모형

5개 연도에 걸친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을 선정하고자 x^2 값과 TLI, CFI와 RMSEA의 값을 살펴본 결과,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은 무조건모형 1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종 선택된 잠재성장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연도 정서성 기질 평균은 13.58점이고, 이는 매년 0.16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변량은 -0.57이었다. 즉, 부정적 정서성 기질의 변화는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과 변화율의 개인 간 변량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2수준 예측 변인으로서 부모의 환경적 특징 변인을 투입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변형 모형 분석에서 설명되지 않은 개인 내 잔차 변량 5.81이 무조건모형 분석에서 4.78

로 줄었다. 이는 정서성의 변화율 변인 투입에 대한 변화량으로 정서성 변화의 개인 내 변량 중 17.71%가 시간 효과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R^2 = \frac{5.809 - 4.780}{5.809} = 0.1771$$

〈표 8〉 무조건모형의 평균과 분산

	<i>M (SD)</i>	<i>Var (SD)</i>	<i>Covar (SD)</i>
초기 정서성 기질 평균	13.58 ^{***} (.062)	4.78 ^{***} (.25)	
정서성 기질 변화율	.16 ^{***} (.022)	0.40 ^{***} (.03)	-.57 ^{***} (.0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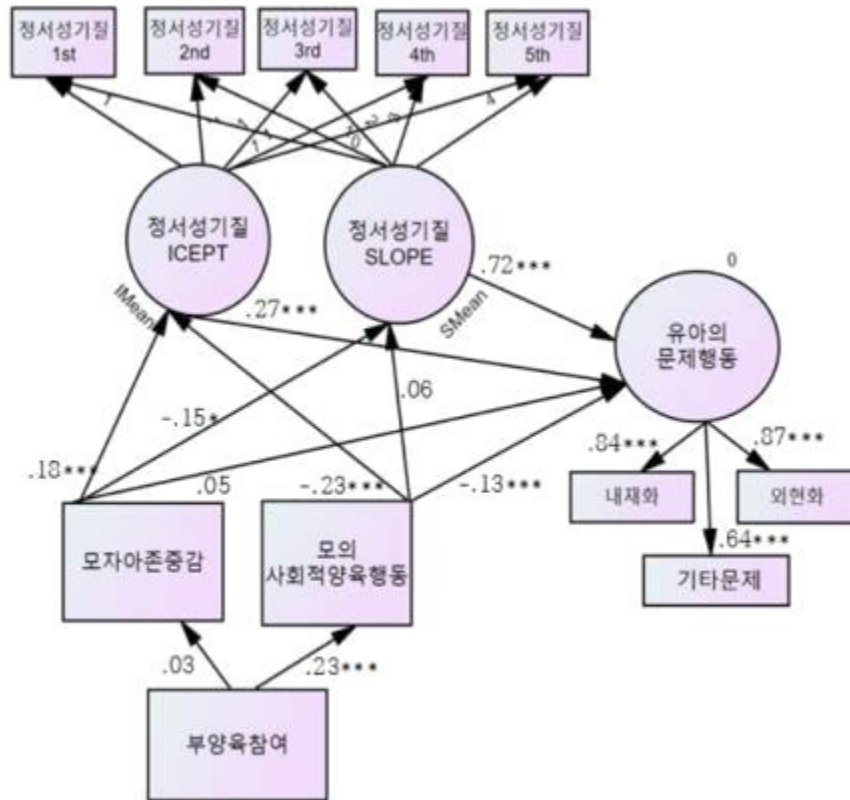
〈표 9〉 무변화모형의 분산

	<i>B</i>	<i>S.D.</i>	<i>C.R.</i>
초기 정서성 기질	3.969 ^{***}	0.17	23.57
1~5차연도	5.809 ^{***}	0.98	59.01

* $p < .05$, ** $p < .01$, *** $p < .001$

4. 정서성 기질의 변화와 모의 특징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과 1차 연도 모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유형 및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그리고 5차 연도 유아의 문제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3] 정서성 기질의 변화와 어머니 요인 및 유아 문제행동의 구조모형

* $p < .05$, ** $p < .01$, *** $p < .001$
 ** 오차항 표기 생략됨.

<표 10>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구조모형	227.65	41	.000	.945	.966	.046(.040-.052)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chi^2=227.65(df=41, p<.000)$, TLI=.945, CFI=.966, RMSEA=.046으로 나타나 본 자료로 해당 연구모형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과 1차 연도 모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유형 및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그리고 5차 연도 유아의 문제행동이 인과 관

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구조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경로	<i>B</i>	β	<i>S. E.</i>	<i>C. R.</i>
정서성 기질_ICEPT → 문제행동	.857***	.271	.129	6.657
정서성 기질_SLOPE → 문제행동	10.405***	.724	1.478	7.039
모의 자아존중감 → 문제행동	.132	.048	.113	1.169
모의 사회적양육행동 → 문제행동	-.242**	-.129	.074	-3.257
모의 자아존중감 → 정서성 기질_ICEPT	.153***	.175	.030	5.040
모의 자아존중감 → 정서성 기질_SLOPE	-.028*	-.146	.011	-2.576
모의 사회적양육행동 → 정서성 기질_ICEPT	-1.136***	-.228	.021	-6.601
모의 사회적양육행동 → 정서성 기질_SLOPE	.008	.063	.007	1.106

* $p < .05$, ** $p < .01$, *** $p < .001$

구조모형에서 1차 연도 모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양육행동이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를 매개로 5차 연도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연도에 측정된 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정서성 기질의 초기치($\beta = .153$, $p < .001$)와 변화율($\beta = -.028$, $p < .05$)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5차 연도에 측정된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연도에 측정된 모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성 기질의 초기치($\beta = -1.136$,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성 기질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유아의 정서성 기질의 초기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유아의 부정적인 특징의 기질이 높다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증가할 때, 유아의 정서성 기질의 초기치를 낮게 인식하여 부정적인 기질적 특징이 낮다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차 연도에 나타난 자녀의 문제행동($\beta = -.242$,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모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자녀의 초기 부정적인 정서성 기질이 높다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성 기질의 변화가 적다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성 기질의 초기치($\beta = .271$, $p < .001$)와 변화율($\beta = .724$, $p < .001$)이 5차 연도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성 기질 궤적은 5차 연도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성 초기치가 높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문제행동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양육환경으로서의 모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5차 연도 자녀의 문제행동(내재화, 외현화, 기타행동)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29, p < .001$). 1차년도 모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5차 연도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궤적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패널데이터의 2008년 1차 연도부터 2012년 5차 연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 궤적이 양육 환경으로서 모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유형 및 모가 지각하는 부의 양육참여와 함께 이후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종단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은 선형 모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적이고 기분이 쉽게 나빠지거나 자주 화를 내는 등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기질적 특징은 5년이라는 시간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차를 유발하는 고유의 특징인 기질(Buss, 1989)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발견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신생아를 양육하는 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기질이 더 예민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 그 정도는 더욱 빠르게 심화되는 형태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김소영·홍세희, 2015)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 환경으로서 모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양육행동은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기질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초기 부정적인 기질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의 부정적인 기질의 증가는 점차 감소한다고 인식하였다. 김소영과 홍세희(2015)는 자녀가 신생아일 때 영아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양육자보다 자녀의 기질이 더욱 예민

하다고 느끼지만, 신생아의 행동에 양육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양육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즉, 신생아기에 울음으로만 자신의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 영아에게 신속하게 반응하고 영아의 욕구를 파악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모는 그 횟수가 반복되거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육적인 반응을 지속해야하는 것에 대한 소진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에 아이의 부정적인 기질적 특징이 높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인 기질의 증가는 낮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는 점차적으로 양육적인 반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이의 기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 행동을 나타내며(최선녀, 2015) 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이라는 Cohen과 Willis(1985)의 제안과 일치하는 측면이며, 모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주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osenberg, 1989)는 선행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셋째, 모가 지각하는 부의 양육참여는 모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성 기질의 초기치가 낮다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아버지를 협력적인 공동양육자로 인식하게 된다는 선행연구(Mulsow, Caldera, Pursely, Reifman, & Huston, 2002)와 일치하는 것으로 영유아기에는 보편적으로 엄마가 주된 양육자로 자녀를 돌보지만 이 시기에도 모의 양육을 지지할 수 있는 부의 양육참여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의 양육참여가 모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자녀의 문제행동 정도가 낮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자녀발달 과정에서 아버지는 영유아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Flouri & Buchanan, 2003)는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양육 환경으로서 부의 양육 참여가 모의 양육 및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영유아 시기에 부의 양육 참여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발달 양상을 중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양육 환경으로서 어머니의 특징과 이후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구조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구체적인 개입 변인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에서 양육 환경으로서 모의 개인적인 변인 이외에 사회적 지지와 부의 특징 변인을 좀 더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양육 환경 변인으로서 부의 특징이 영유아의 기질 변화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성 기질의 변화가 아동의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 발달 등 전반적인 아동의 발달 영역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그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양육 환경으로서의 부모의 특징적인 요인이 단순히 일부 가정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영유아가 성장하는 가정의 양육 환경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 문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초기 및 유아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여 친사회적인 양육 행동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때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산모를 대상으로는 출산 이후 신생아를 양육하는 보호자 역할을 지지하고 실제 양육 행동에 도움을 주고자 영아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양육자의 반응을 알려주는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기질적 특징은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양육 환경으로서 모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이 자녀의 부정적 기질의 정도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생아의 기질 조율 및 발달에서 양육자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특히 산모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생아의 주된 양육자인 산모를 강조하는 이유는 산후 1년의 기간에 우울이 처음으로 발병되기 쉬운 중요한 시기로 주목받고 있으며(방경숙, 2012), 전체 우울 환자의 45~65%가 이 기간에 발병하였다(Hollins, 2007)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제안하였다. 즉, 어머니가 산후 우울이 있는 경우 영아의 기질을 까다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후 6개월까지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McGrath, Records & Rice, 2008)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생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의 양육 행동을 지지하고자 특히 영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모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산모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발달적 특징 등에 대한 안내도 동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양육 환경적 특징으로서 아버지 역할 및 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자녀발달 과정에서 어머니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Flouri, 2010; Goncey & Dulman, 2010). 특히, 생애초기 1-2년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아 발달에 중요하며(Easterbrook, Raskin, & McBrian, 2014) 신생아 출생 이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의 양육 참여는 영아의 언어발달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한유미·조정자·강기숙, 2012). 이처럼 영아의 발달을 비롯하여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의 양육 참여를 지지하고 격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이나 대안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육아 정보 등에 대한 소식 및 지식을 접하는 것이 어렵고, 직장에서 장시간 근로 하거나 육아 지원제도 사용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다(이옥경·문정희·박나리, 2016). 이에 더불어 남성들도 일과 가정생활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삶의 모습은 일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가정생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현실에서의 간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문은영·서영주·최나리, 2011). 이러한 차이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신생아 및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확립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국외의 경우를 볼 때, 스웨덴은 부성 휴가제와 아버지 할당제의 이용이 차츰 강화되고 있으며, 남성이 육아 휴직을 이용하는 비율 또한 상승하고 있어 출산율이 높은 것에 대하여 큰 역할을 하는 것(김영옥·이택면·강민정·임희정·나성은, 2014)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은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유해미·정주영·양유진, 2013). 이처럼 실제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권연희(2012). 남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2(2), 29-48.
- 강희경·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20(2), 41-55.
- 김소영·홍세희(2015).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정과 이에 대한 영향요

- 인 검증. 아동학연구회, 35(4), 301-371.
- 김영옥·김택면·강민정·임희정·나성은(2014).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문은영·서영주·최나리(2011). 서울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활성화 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2, 1-189.
- 방경숙(2012). 산모의 우울이 생후 4개월 영아의 기질, 건강과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의 지평, 9(1), 9-15.
- 서석원·이대균(2013).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영아의 정서적 기질이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3(5), 279-298.
- 오경자·김영아(2009). CBCL 1.5-5 매뉴얼 부모용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유해미·정주영·양유진(20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연구보고서 2013-3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12). 도구 프로파일: 아동특성변인 EAS 기질척도_부모용. 육아정책연구소, http://panel.kicce.re.kr/kor/publication/01_02.jsp?mode=view&idx=10068&startPage=50&listNo=6&code=paneltoolsprofiles&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에서 2018년 5월 1일 인출함.
- 육아정책연구소(2012). 도구 프로파일: 부모특성변인 자아존중감. 육아정책연구소, http://panel.kicce.re.kr/kor/publication/01_02.jsp?mode=view&idx=10258&startPage=50&listNo=10&code=paneltoolsprofiles&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에서 2018년 5월 1일 인출함.
- 육아정책연구소(2012). 1차년도 도구 프로파일: 13. 양육스타일. 육아정책연구소, http://panel.kicce.re.kr/kor/publication/01_02.jsp?mode=view&idx=7003&startPage=60&listNo=1&code=paneltoolsprofiles&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에서 2018년 5월 1일 인출함.
- 육아정책연구소(2012). 도구 프로파일: 부모 아버지 양육참여. 육아정책연구소, http://panel.kicce.re.kr/kor/publication/01_02.jsp?mode=view&idx=13924&startPage=40&listNo=17&code=paneltoolsprofiles&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에서 2018년 5월 1일 인출함.
- 이옥경·문정희·박나리(2016). 부산지역 아빠육아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10, 1-201.
- 이정숙·두정일(2008). 유아의 적응적 기질과 부의 양육참여도가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3(2), 1-17.
- 이형민·박혜원·김말경·장유경·최유리(2008). 유아 기질의 안정성 -단기종단분석-. 대한가정학회, 46(7), 47-58.

- 최미숙·송순옥(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프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313-332.
- 최선녀(2015).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기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8), 5160-5171.
<http://dx.doi.org/10.5762/KAIS.2015.16.8.5160>
- 한유미·조경자·강기숙(2012). 영아 및 부모 특성과 12 개월 영아의 발달적 특성 관계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3), 441-457.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유숙경(2004). Autoregressive Cross lagged Model을 적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중단관계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18(1), 381-392.
- Achenbach TM, Rescorla LA. (2000). *Manual for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University of Vermont.
- Bates, J. E., Maslin, C. A., & Frankel, K. A. (1985). Attachment security,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 ratings at age three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67-193.
- Bates, J. E., Schermerhorn, A. C., & Petersen, I. T. (2012).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Zentner & R. L. Shiner (Eds.), *Handbook of temperament* (pp.425-441). NY: Guilford.
- Bornstein, M. H. (1989). Between caretakers and their young: Two modes of interaction and their consequences for cognitive growth. In M. J. Bornstein & J. S. Bruner (Eds.),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 Behavioral and biological perspective* (pp.147-17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Inc.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ss, A. (1989). Temperaments as personality traits. In G. A. Kohnstamm, J. E. Bates and M.K. Rothbart. (Ed.), *Temperament in childhood*. (pp.49-58). John Wiley & Sons Ltd.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hess, S., & Thomas, A. (1984). *Origins and evolution of behavior disorders*. NY: Guilford Press.
- Cohen. S., & Willis, T.,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Easterbrooks, M. A., Raskin, M., & McBrian, S. F. (2014). Father involvement and toddlers' behavior regulation: Evidence from a high social risk sample. *Fathering*, *12*(1), 71-93.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Flouri, E. (2010). Fathers' behaviors and children's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3), 363-369. <https://doi.org/10.1016/j.cpr.2010.01.004>
- Flouri, E., & Buchanan, A. (2003)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n's later mental health. *Journal of Adolescence*, *26*(1), 63-78. [https://doi.org/10.1016/S0140-1971\(02\)00116-1](https://doi.org/10.1016/S0140-1971(02)00116-1)
- Fox, N. A. & Calkins, S. D. (1993). Pathways to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teractions among temperaments, attachment and regulation. K. Rubin & J.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shyness and inhibition in childhood* (pp.81-10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oldsmith, H. H., Lemery, K. S., Buss, K. A., & Campos, J. J. (1999). Genetic analyses of focal aspects of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5*(4), 972-985.
- Hollins, K. (2007). Consequences of antenatal mental health problems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Current Opinion in Obstetrics & Gynecology*, *19*, 568-572. <http://doi.org/10.1097/GCO.0b013e3282f1bf28>
- Lamb, M. E. (2010).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Hoboken, NJ: Wiley.
- Lee, C. L., & Bates, I. E. (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Leidy, M. S., Schofield, T. J., & Parke, R. D. (2012). Fathers' contributions to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NJ: Cabrera & C.S. Tamis-LeMond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pp. 151-167). NY: Routledge.
- Malatesta, C. Z., Culver, C., Tesman, J. R., Shepard, B., Fogel, A., Reimers, M., & Zivin, G. (1989). The development of emotion expression during the

- first two years of lif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136. <http://doi.org/10.2307/1166153>
- Masten, A. S., & Curtis, W. J. (2000). Integrating competence and psychopathology: Pathways toward a comprehensive science of adaptation in develop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529-550.
- McClowry, S. G. (2003). *Your child unique temperament: Insight and strategies for responsive parenting*.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McGrath, J. M., Records, K., & Rice, M. (2008). Maternal depression and infant temperament characteristic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1(1), 71-80. <http://doi.org/10.1016/j.infbeh.2007.07.001>
- Meredith, W., & Tisak, J. (1990). *Latent 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 107-122.
- Miller, P. Mcc., Kreitman, N. B., Ingham, J. G., & Sashidharan, S. P. (1989). Self-esteem, life stress and psychiatric disord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7(1), 65-75. [http://doi.org/10.1016/0165-0327\(89\)90025-6](http://doi.org/10.1016/0165-0327(89)90025-6)
-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Reifman, A., & Huston, A. C.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44-956.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2.00944.x>
- Oland, A. A., & Shaw, D. S. (2005). Pure versus co-occurring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symptoms in children: The potential role of socio-developmental milestone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8(4), 247-270. <http://doi.org/10.1007/s10567-005-8808-z>
- Ostberg, M., & Hagekull, B. (2013). Parenting stress and external stressors as predictors of maternal ratings of child adjustment.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4(3), 213-221. <http://doi.org/10.1111/sjop.12045>
- Raykov, T. (2000). On the large-sample bias, variance, and mean squared error of the conventional noncentrality parameter estimator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7(3), 431-441.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0703_4
- Rodriguez, C. M. (2011). Association between independent repor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symptomatolog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5), 631-639.
- Rohner, R. P., & Veneziano, R. A. (2001). The importance of father love: History and contemporary evidenc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82-405.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Ross, C. E., & Mirowsky, J. (1988). Child 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2), 127-138. <https://doi.org/10.2307/2137053>
- Rothbart, M. K. (1982). The concept of different temperament: A critical analysis of Thomas, Chess, and Korn. *Merrill-Palmer Quarterly*, 28(1), 35-40.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1), 21-39.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R. M. Lerner, & M.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99-166). NY: John Wiley & Sons.
- Russell, A., Hart, C., Robinson, C., & Olsen, S. (2003). Children's sociable and aggressive behaviour with peers: A comparison of the US and Australia, and contribution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1), 74-86.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https://doi.org/10.1111/j.1365-2214.2005.00487.x>
- Sarkadi, A., Kristiansson, R., Oberklaid, F., & Bremberg, S. (2007).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cta Paediatrica*, 97(2), 153-158. <https://doi.org/10.1111/j.1651-2227.2007.00572.x>
- Shaffer, D. R. (200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Cengage Learning.
- Susa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1), 142-170. <https://doi.org/10.1046/j.1467-9507.2004.00261.x>
- Visser, J. C., Smeekens, S., Rommelse, N., Verkes, B. J., Van der gaag, R. J., & Buitelaar, J. K. (2010). Assessment of psychopathology in 2-to 5-year olds: Applying the infant-toddler social emotional assess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1(6), 611-629. <https://doi.org/10.1002/imhj.20273>

- 논문접수: 4월 16일 / 수정본 접수 5월 10일 / 게재 승인 6월 12일
- 교신저자: 유미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msyookr@gmail.com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rajectories of Child's Emotional Temperament, Mother's Traits and Child's Behavior Problems: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Jeon Hye Jin and Yoo Mee Sook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trajectories of child's emotional temperament and analyz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temperament in the influence of mother's traits on child's behavior problems in early childhood. In order to do so, the first through fifth longitudinal data set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beginning in 2008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was us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linear increase in the child's emotional temperament, and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 in each of two terms(intercept and slope) was found. Second, mother's self-esteem, and social parental styl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rajectories of child's emotional temperament. Third, the trajectory of child's emotional temperament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self-esteem, social parental style, father's parental involvement (1st wave) and you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5th wave).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emotional temperament, child behavior problems, trajectory, structural relationship,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